

## 論文的 構成은 어떻게 하는가

編 輯 室

### 1. 內容의 區分과 配列

科學論文은 관련되는 學會나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간행물에 掲載하게 된다. 따라서, 간행물을 주관하는 기관의 방침이나 형식 등에 따라서 論文의 樣式과 體制가 다르며 또 論文의 目的, 性質, 種類 및 길이 등에 따라서도 一定하지 않다. 그러므로 論文을 쓸때에는 먼저 자기가 게재하려고 하는 간행물의 投稿規定이나 審査規定등을 검토해 보아 일정한 構成方式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科學論文을 작성할 때에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基準形式의 代表的인 區分 및 配列順序는 다음과 같다.

- ① 論題, 標題; Title
- ② 目次, 內容; Contents
- ③ 序論, 序言, 緒論; Introduction
- ④ 材料 및 方法, 實驗方法, 研究方法; Materials and Methods, Experimental Methods, Methods
- ⑤ 研究成績, 實驗成績, 結果; Experimental Results, Results
- ⑥ 考察, 論議; Discussion, Comment
- ⑦ 結論, Conclusion
- ⑧ 總括, 摘要, 要約; Summary
- ⑨ 文獻, 參考文獻, 引用文獻; References, Literature, Bibliography

이 외에 다음 事項을 별도로 독립된 項으로 두는 경우도 있다.

- ① 研究史; Historical
- ② 謝辭; Acknowledgment
- ③ 附錄; Appendix
- ④ 圖版說明; Explanation of Plates
- ⑤ 圖版; Plates

이러한 事項들을 별도로 獨立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研究史는 일반적으로 서론 속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謝辭도 서론이나 結論의 끝부분에 넣는다.

논문 첫 페이지에 論題, 著者名, 所屬機關名을

표시하기도 하며 편집자가 論文 接受日을 표시하는 경우도 많다. 인쇄 중에 일어난 새로운 사태에 관한 追加(addendum)등도 첨가시킬 수 있으며 圖版이 있을 때에는 圖版說明을 文獻 다음에 넣고 圖版은 별도의 페이지에 독립시켜 첨가한다.

모든 項目을 빠짐없이 다 포함시킬 경우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論題 ② 著者名 ③ 所屬機關名 ④ 紹介者名 ⑤ 論文接受日 ⑥ 圖, 圖版數 ⑦ 目次 ⑧ 序論 ⑨ 研究史 ⑩ 材料 및 方法 ⑪ 研究成績 ⑫ 考察 ⑬ 結論 ⑭ 摘要 ⑮ 謝辭 ⑯ 追加 ⑰ 文獻 ⑱ 附錄 ⑲ 圖版說明 ⑳ 圖版

논문의 길이나 구분한 내용의 길이 등에 따라서 簡略한 項名중에서 몇 개를 합쳐 한 項目으로 들 수 수도 있으며 어떤 항목은 생략할 수도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짧은 논문에서는 目次를 붙이지 않는다. 또한 경우에 따라 목차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보통 全文 보다 작은 活字로 項名만 나열하여 차례를 알 수 있게 한다.

2) 序論 속에 材料 및 方法을 포함시켜 項名은 그대로 서론이라고 붙이든가 아니면 아무 명칭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쓰는 수도 있다.

3) 研究成績과 考察을 함께 묶거나 혹은 고찰을 結論과 함께 묶기도 한다.

4) 結論과 總括을 함께 합쳐서 結論이라 하던지 總括이라고만 부치는 경우도 많으며 이때에는 結論 및 總括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5) 研究成績에서 總括까지를 합쳐서 研究成績으로 表記하기도 한다.

6) 아주 짧은 논문에서는 序論에서 考察에 이르기까지를 묶어서 그대로 쓰는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總括과 文獻部分만 項名을 表記한다.

7) 아주 짧은 논문에서는 序論에서 總括까지를 모두 묶어서 함께 세 項에 대한 項名을 붙이지 않고 參考文獻만 項名을 붙이는 수도 있다.

위에서 말한 기준 형식은 科學論文에 있어서 관

범위하게 어느 분야에서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반성 있는 配列形式이다. 論理的인 意思傳達의 方式으로 基本型이 되고 있는 順序인 序論, 本論, 結論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면서 本論部가 몇 개의 項으로 구분 배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本論에 해당하는 부분은 自然科學을 세분한 各學問의 分野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같은 分野에서도 研究方法이나 論文의 길이 등이 다를 때에는 그 構成도 各 論文나를 대로 獨特하게 배열해 주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 2. 項別內容은 어떻게 하는가

### 1. 論題(標題)

大學에서 작성하는 논문은 학기초에 지시되어서 학기말 직전에 完成토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資料의 수집에 많은 시간을 쓰게 되며 提出時까지는 수차 수정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論題를 確實하게 결정해 두지 않거나 그것을 도중에서 변경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研究論題는 될수록 學期初에 일찍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論題는 독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인상 깊게 접하게 되는 論文의 얼굴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히 생각하여 決定해야 한다. 論題를 결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점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1 論文의 主된 內容을 明確하게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論題만 보아도 그 論文의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論題를 부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막연하거나 너무 과장된 論題이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洪水流出에 관한 연구” 등과 같은 논제는 문제를 일반적으로 다룬 듯한 막연한 감을 주기 때문에 “洪水流出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에 관한 연구”로 바꾸어 준다면 讀者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게 될뿐 아니라 그만큼 많은 독자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論題가 그 논문의 내용을 정확히 나타내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後學者들까지도 文獻을 調査할 때에 곤란을 겪게 되며 論文이 바라는 바의 意圖도 반감하게 된다. 날로 많아지고 있는 논문들을 이용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근래에는 抄錄集(abstracts)이 다수 出刊되고 있는데 이러한 초록집의 索引을

작성할 때에는 論題중의 key word를 機械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論題중에 그러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그 예를 표시하여 둔다. 그 예는 抄錄集中에 기재되어 있는 한 논문을 소개한 부분이다.

보기;

TITLE: IRRIGATION MANAGEMENT FOR SALT CONTROL

KEY WORDS: Irrigation; Salinity; Salt balance; Salt tolerance; Water chemistry; Water management(applied); Water pollution; Water quality

ABSTRACT: Reinterpretation of crop tolerance data to salinity, chemical precipitation, and dissolution phenomena in soil and soil water flow principles leads to an irrigation water management concept that permits substantial reduction in the amount of salt discharged from irrigation projects. The use of frequent and uniformly applied irrigations, tailored to meet a low but sufficient leaching requirement, provides a means toward minimizing the adverse effects of irrigation on downstream water quality, while maintaining a viable irrigation agriculture.

REFERENCE: van Schilfgaarde, Jan, Bernstein, Leon, Rhoades, James D., and Rawlins, Stephen, L., "Irrigation Management for Salt Control," *Journal of the Irrigation and Drainage Division, ASCE*, Vol. 100, No. IR 3, Proc. Paper 10822, September, 1974, pp. 321-338

#### 1:2 簡潔한 것이어야 한다.

論題는 가능하면 간단하고 짧을수록 좋다. 그렇다고 너무 단축시켜 논문의 주된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는 곤란하다. 論題가 너무 길 때에는 文獻作成上, 또는 引用上 곤란하며 기억하기도 불편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되고 있는 많은 논문들은 “○○에 관한 研究” 등과 같은 형식으로 研究論文임을 강조하는 傾向이 있다. 이러한 형식은 論題의 길이가 길건 짧건 상관하지 않고 쓰고 있으나 논제가 긴 경우에는 “~관한 研究” 部分만이라도 줄여 주는 쪽이 바람직하다. 또 論題에서부터 규격화 된 느낌을 준다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못하다.

이러한 형식을 타파하면 훨씬 특색 있는 논제를 부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어떤 학술에서는 논제의 길이를 제한하기도 한다. 예컨대 美土木學會에서는 띄운 자리까지 합쳐 50以內的 단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1:3 注意를 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科學論文의 논제로서 과도의 과장이나 수식을 피해야 하지만 著者が 강조 하고자 하는 點이 독자의 눈에 잘 띄이도록 하여 논제만 보더라도 읽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論題로서 바람직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細密한 내용을 충실하게 나열하여서는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반대로 너무 가깝하게 만들어 논제와 내용이 유리되어서도 안 되, 때문에 신중히 생각할 문제이다.

논문을 수록하는 잡지의 欄外에는 論題를 표기하여 두는데 論題가 너무 긴 경우에는 이를 간략하게 하여 欄外標題(running title)를 표시하게 된다. 이때에는 저자가 미리 적당히 줄여서 편집인에게 제시해 두는 것이 좋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欄外標題를 논제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으나 앞으로는 외국처럼 줄여서 쓰는 것이 곧 실용화되리라 본다. 다음에 그 實例를 소개한다.

보기;

Title

A System of Waste Discharge Rights for the Management of Water Quality

Regression Analysis of Nonlinear Catchment Systems

Application of a Local Similarity Concept in Solving the Vertical Subsurface Flow Problem

Running title

Waste Discharge Rights

Rainfall-Runoff Relations

Vertical Subsurface Flow Problem

우리나라의 모든 學術誌에서는 論題를 英文으로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에는 論題 밑에 줄(一)을 치거나 다음표(“ ”)를 붙이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論題의 끝에는 句讀點을 찍지 않는다.

2. 著者名

著者が 소속하고 있는 研究所, 大學등은 著者名 앞에 표시하거나 혹은 괄호 속에 넣어서 著者名, 뒤

쪽에 붙이거나 또는 脚註로 해서 표시하는데, 어느 방법에 따를 것인가는 그 刊行物の 編輯方針에 따라야 한다.

國文名도 반드시 英文名을 併記토록 하고 있는데 著者名의 英文表記法은 사람에 따라 구구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어떤 형식으로 표기할 것인가는 역시 雜誌의 規定에 준하는 것이 좋다. 英文表記에서 논문을 발표할 때마다 綴字를 변경하게 되면 異人으로 오해 받게 되므로, 한번 쓰게된 綴字는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또 外國人이 보아서 姓과 이름을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共著의 경우, 著者名의 순서는 실제 그 논문에 대하여 공헌한 程度의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論文指導者, 先輩, 職位등의 순으로 배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共著者와 補助者 또는 助手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조그만한 공헌을 한 사람도 共著者로서 列記한다면 著者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協力者로서 그 일의 진반에 걸쳐 내용을 상의하고 협조한 사람만을 共著者로 하고, 다만 일의 일부분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보조자로 하여, 필요하다면 논문의 어느 적당한 부분에서 謝辭의 형식으로 언급해두면 된다. 이와는 달리 部分的 이해마저 없이 著者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일한 고용인에 대해서는 謝辭의 필요 조차 없다.

共著者의 이름을 표기하는 순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 1) 研究 分擔이 가장 많았던 사람을 제일 앞에 내세우며 研究者의 地位의 高下에는 구애 받지 않는다.
- 2) 姓의 가나다順으로 표기한다.
- 3) 研究者의 地位나 經歷順으로 한다.

3. 目次(內容)

진 論文일 때에는 著者名 다음에 논문의 目次를 붙인다. 그러나 그다지 길지 않은 印刷論文에서는 편집의 기교에 따라 내용의 구분이 명확하게 될 수도 있어 별도로 目次를 붙여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目次는 地文의 첫머리에 다소 적은 활자로써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目次가 너무 세분화되는 것은 피한다. 즉, 目次의 표시는 대체로 章·節까지만 하고 페이지의 표시는 넣어도 되지만 넣어도 무방하다. 넣을 경우에는 마지막 校正時에 다시

확인해서 틀리지 않도록 한다. 地文의 章에다 로마 數字를 붙여 구분할 경우에는 앞머리가 一直線이 되게 배열하지 않고 번호의 右端이 일직선이 되게 배열한다. 引用文獻은 地文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취급을 하기 때문에 番號를 붙이지 않으며 로마 數字로 표시한 地文番號의 左端과 “引”字를 동일한 위치에 오게 한다.

論文의 目次를 예를 들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기; 가. 우리말 논문의 目次

目 次

規 旨

- 1. 序 論 .....
- 2. 實驗의 裝置, 進行 및 分析.....
  - 2:1 實驗裝置
  - 2:2 實驗進行
  - 2:3 檢水分析
- 3. 結果 및 討議 .....
- 3:1 下水處理效率
- 3:2 曝氣室內에서의 下水 停滯時間
- 3:3 濾過膜 活性汚泥法에서의 BOD 除去理論
- 3:4 纖維濾過膜의 水理學的 能力
- 3:5 反應槽內에서의 微生物의 活動
- 3:6 曝氣率
- 4. 結 論 .....
- 參 考 文 獻 .....

나. 英語論文의 目次

CONTENTS

Abstract

- 1. Introduction .....
- 2. Choice of study region.....
- 3. Data used in analysis.....
  - a. Peak discharge data
  - b. Topographic characteristics
  - c. Meteorologic characteristics
- 4. Analytical procedures .....
- 5. Results .....
- 6. Discussion .....
- References .....

4. 序論(序言, 緒論)

序論에서는 主題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한 解説을 제시한다. 즉 主題의 性質, 研究史, 研究의 目的,

範圍, 意義 및 研究를 하게 된 동기등을 서술한다. 研究史는 그 길이에 따라 별도의 章을 만들 수도 있으나 序論에 포함시켜 기술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著者 및 타인의 연구에 대하여 간결하게 개요만을 기술한다. 전에는 研究史를 序論 가운데 포함시킬 경우에도 구분이 되도록 하거나 혹은 완전히 별개의 章으로 내세웠으나 오늘날에는 논문의 길이가 제한 되는 경우가 많게 되었으며 논문을 쓰는 방법도 간단하게 되어 研究史를 독립시키지 않게 되었다. 다만 研究의 범위가 넓어 내용이 복잡하거나 논문이 總說의인 경우에는 研究史를 독립시켜서 기술하고 있다.

研究史는 年代順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文獻引用의 범위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 제한시켜야 한다. 너무 歷史的 文獻을 많이 나열하거나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논할 필요는 없다. 序論에서 어디까지나 논문의 本論部에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豫備知識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간명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에 와서는 논문의 첫머리에 序論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고 序論에 해당하는 부분을 써 나가는 논문이 많아지고 있다.

5. 材料 및 方法(實驗方法, 研究方法)

材料와 方法이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구분하여 별도로 기술하는 것이 좋으나 반대로 매우 간단한 경우에는 완전히 생략하여 序論의 끝부분에다 넣거나 혹은 다음에 나오는 研究成績에 묶어도 된다. 材料 및 方法은 동일한 材料와 方法을 쓰면 누구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著者가 쓴 材料 및 方法을 정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특히 材料의 採取方法이나 實驗方法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 改善한 점 및 새로이 착안한 점 등에 관해서는 상세히 기술한다. 學術上의 논쟁은 材料 또는 方法이 틀림으로써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잘 알려진 방법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길게 설명해 줄 필요 없이 그 방법의 이름이나 關係文獻만 말해 두면 된다.

6. 研究成績(實驗成績, 結果)

研究成績은 그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논문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實驗, 觀察등의 종류와 성질 및 결과를 사실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著者가 얻은 成果중에서 예기한 것만 채택 기재하

고 기대 밖의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그것을 빼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實驗成績이 불충분한 것은 논문으로서 가치가 없으므로 實驗成績中 논문이 올릴 내용을 엄격하게 取舍選擇해야 된다. 이렇게 선정된 결과들은 그 내용이 풍부한 것일지라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表나 그림으로 정리하여 나타내고 地文中에 실험 결과를 길게 나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판단은 다음에 나오게 될 考察에서 다루게 되며 여기서는 가능한한 著者の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야 한다.

### 7. 考察(論議)

이 項에는 자기의 研究結果에 대한 理解的 究明과 예기치 않았던 예외적인 結果에 대한 설명, 다른 研究者들의 결과와의 비교 등이 포함된다. 먼저 研究成績들이 어떤 뜻을 가지는가를 數學的인 표현으로 정리하거나 物理(物理)의 법칙에 맞추어 설명한다. 研究成績에 있어 자기가 세운 이론과 모순되는 資料가 있을 경우나 혹은 不充分, 不正確한 곳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것을 考察에서 명기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를 보게 되는 다른 研究者가 著者와는 다른 각도로 考察하여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나오게 된다. 그리고 다른 研究者들의 성격과의 비교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文獻을 참고하여 他學者들이 연구한 결과와 같은 點, 혹은 틀리는 點을 명확히 지적하고 그러한 相違의 원인도 검토해야 한다.

### 8. 結 論

結論에서는 그 研究成果가 그 방면의 학문에 미칠 影響과 意義 및 가능한 새로운 寄與 방법 등을 기술하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假說이나 學說 및 원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명백하게 기술해야 한다. 結論에서 주의할 點은 非確定的인 사실을 가지고 과대한 단정을 하거나 독단적인 추정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논문의 흐름에서 各章마다의 특색을 明確히 구분하여 표시하기 어렵고 考察과 結論部分이 짧은 논문에서는 왕왕 考察을 생략하고 바로 結論으로 들어가거나 考察과 結論을 함께 묶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結論과 다음에 나오는 總括을 함께하기도 한다. 結論이란 考察結果 얻은 斷案으로 研究成績의 보편화를 뜻한다. 따라서 結論은 가능하면 짧게 하고 이 結論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實驗條件)를 명

시한다.

### 9. 總括(摘要, 要約)

總括은 논문의 최후에 두는 것이 보통이나 논문의 첫머리에 실리기도 한다. 總括에서는 論文의 요점만을 간단하게 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자기 專門分野의 논문일지라도 그 內容을 하나하나 전부 읽어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總括만을 읽어 그 논문의 요점을 파악하려고 한다. 總括이란 그만큼 중요한 것이므로 모든 논문에 꼭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外國人讀者들을 의식하여 英文總括을 수록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總括의 길이는 地文 길이의 1~3% 정도를 개략적인 기준으로 잡고 있다. 또 總括에 포함시키는 가장 중요한 內容은 著者가 얻은 새로운 研究成績과 結論이지만 이 외에도 가능하면 논문에서 채택한 材料의 實驗方法도 간결하게 소개하고 考察에서 중점적으로, 취급한 사항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總括은 番號를 매겨 요점만을 項目別로 나열하는 것이 좋다. 總括에서는 文獻引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10. 謝 辭

謝辭는 研究에 대한 지도 및 研究進行과 論文作成 등에 중요한 功勞를 한 사람에게 謝意를 표하는 것이다. 또한 研究費의 보조를 얻은 경우 이를 명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謝辭는 序論의 끝부분이나 本文의 마지막 즉, 參考文獻 바로 앞에 실리는 것이 보통이다. 地文中에서는 恩師나 선배의 이름에도 尊稱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謝辭속에서는 教授, 博士, 先生 등의 尊稱을 쓰는 것이 慣例이다. 2人 이상의 사람에게 謝辭를 할 경우에는 가장 寄與를 많이 한 순서로 기술하면 된다. 地位, 年齡 등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다음에 謝辭의 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보기;

가. 이 研究는 1975年 月부터 1976年 월까지 ○○大學附屬 ○○研究所에서 行한 것이다. 시종 指導를 베풀어 주신 ○○○教授에게 深甚한 謝意를 표한다.

나. 이 研究는 ○○部 學術研究費의 補助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을 밝힌다.

다. 原稿의 校閱과 有益한 批評을 해주신 ○○○氏에게 謝意를 표한다.

### 11. 參考文獻(引用文獻, 文獻)

參考文獻은 논문의 마지막에 수록하며, 보통 작은 活字를 쓰고 있다. 參考文獻의 생명은 正確性에 있다. 著者名, 年號, 論題, 雜誌名, 卷數, 페이지數 등 한자 한자를 誤字와 脫者가 없도록 기재하여 완전한 논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記載의 순서는 地文에 引用한 순서에 따르거나 著者名의 알파벳 순으로 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章에서 다루게 된다.

### 12. 附錄, 追加

科學論文에서는 數式에 사용한 記號나 實驗과 觀

測等에 관한 자세한 資料등을 附로 하여 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이를 附錄으로 하거나 附表로 하여 參考文獻 다음에 붙인다. 또 논문의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데 직접 관계는 없으면서도 일단 記述해 두는 편이 참고가 되나, 그것이 논문의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잘라 附錄으로 뒤에 붙이는 수도 있다.

追加는 이미 논문이 제출된 뒤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새로운 관계 깊은 文獻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첨가하는 것으로 總括되나 參考文獻 뒤어 실린다. 附錄이나 追加는 논문의 다른 부분보다는 작은 活字를 써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